

## 教養 讀書의 方法

한 철 우

### 1. 독서의 방법, 그 '개념'에 대하여

#### 1) 교양적 독서의 개념과 특징

여기서 교양 독서란 비문학적 텍스트의 독서를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서 교양적 독서란 문학과 비문학의 모든 독서를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아니 오히려 교양 독서의 중추가 문학 독서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비문학 텍스트의 독서를 교양 독서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비문학적 텍스트의 영역은 다시 인문, 사회, 과학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문은 다시 철학, 윤리, 역사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사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으로, 그리고 과학은 생물, 화학, 물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크게 이분하여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들 영역의 내용과 텍스트의 성격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문학적 텍스트와 비문학적 텍스트의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적 텍스트는 허구적이며 구체적이다. 이에 비하여 비문학적 텍스트는 사실에 바탕을 두며 사실에 대한 해석이며 개념적이다. 문학 텍

스트가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비문학적 텍스트는 인간의 삶을 다루되 간접적으로 그리고 추상적·개념적으로 다룬다. 인간의 삶을 간접적으로 다룬다 함은 인간의 삶을 좀더 거리를 두고 관찰함을 뜻한다. 비문학적 텍스트 가운데서도 자연과학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다루고 있어 인간과는 좀더 거리를 둔다고 하겠다.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문학의 독서는 독자의 감동을 자극하거나 그런 결과로 독자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에 비하여 비문학적 독서는 격동적인 감동보다 고요한 '이해'를 가져온다. 비문학적 교양 독서는 이치를 따진다. 그리고 독자가 텍스트 속에 몰입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조용한 명상을 함께 즐긴다. 비문학적 독서에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적 독서의 감동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비문학적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비문학적 텍스트가 그 분야의 학문적 결과를 반영한 지식의 체계이므로, 비록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 그 자체가 아닌 교양적 수준의 해설이라 하더라도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문학적 텍스트도 일정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학문적 지식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양적 텍스트의 독서는 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다방면의 독서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지식 수준, 관심 등을 고려하여 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비문학 교양 텍스트의 독서를 통해 얻는 것은 지식의 체계이다. 우리가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혹은 삶의 품위를 위해서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지식의 습득이다. 지식의 습득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비문학 교양 텍스트의 독서는 그러므로 통독보다는 정독을 하게 될 것이다.

비문학 교양 텍스트의 독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필

요로 하므로 재미와 흥미를 앞세워 독서를 하기보다는 교양인이 되기 위한 사명과 의무감에서 독서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을 교양 독서의 목적 중의 하나로 독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교양적 독서에서 다소의 어려운 독서라도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 2) '독서의 방법'과 '독해의 방법'

독서의 방법은 책을 선택하기 이전과 책을 선택한 이후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책을 선택하기까지의 방법의 문제는 독자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기, 관심 있는 분야의 책 즉,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기, 읽고 싶은 때에 읽고 싶은 자세로 편안하게 읽기, 자기 동기화하기, 독서의 필요성 인식하기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논의는 엄밀히 말해서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는다.

다음의 상식적인 독서 방법에 대한 견해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독서 방법이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 나름에 따라 방법도 다를 것이다. 철학이나 종교에 관한 서적은 깊은 이해와 사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독하여야 할 것이나 시를 제외한 소설 같은 문학 서적은 그대로 빠른 속도로 읽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필요로 하는 역사서는 쉽게 읽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빨리 읽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 김성식 —

전공서나 교양서는 흔히 정독법을 취해야 한다. 특히 전공서는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빨리 읽어서는 아니 되며, 끈기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다음에 교양서에 관해서는 다독법을 권하고 싶다..... 끝으로 취미서는 속독법으로도 좋다.....전공서는 반드시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한다. 가능하면 서재에서 정신을 집중시켜 읽어야 한다. 읽는 시간은 자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밤 또는 낮으로 할 것이며 시간을 제한할 것은

요로 하므로 재미와 흥미를 앞세워 독서를 하기보다는 교양인이 되기 위한 사명과 의무감에서 독서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을 교양 독서의 목적 중의 하나로 독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교양적 독서에서 다소의 어려운 독서라도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 2) '독서의 방법'과 '독해의 방법'

독서의 방법은 책을 선택하기 이전과 책을 선택한 이후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책을 선택하기까지의 방법의 문제는 독자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기, 관심 있는 분야의 책 즉,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기, 읽고 싶은 때에 읽고 싶은 자세로 편안하게 읽기, 자기 동기화하기, 독서의 필요성 인식하기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논의는 엄밀히 말해서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는다.

다음의 상식적인 독서 방법에 대한 견해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독서 방법이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 나름에 따라 방법도 다를 것이다. 철학이나 종교에 관한 서적은 깊은 이해와 사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독하여야 할 것이나 시를 제외한 소설 같은 문학 서적은 그대로 빠른 속도로 읽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필요로 하는 역사서는 쉽게 읽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빨리 읽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 김성식 —

전공서나 교양서는 흔히 정독법을 취해야 한다. 특히 전공서는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빨리 읽어서는 아니 되며, 끈기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다음에 교양서에 관해서는 다독법을 권하고 싶다..... 끝으로 취미서는 속독법으로도 좋다.....전공서는 반드시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한다. 가능하면 서재에서 정신을 집중시켜 읽어야 한다. 읽는 시간은 자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밤 또는 낮으로 할 것이며 시간을 제한할 것은

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하느냐와 관련된다. 독서의 방법은 결국 독서의 심리적 문제이다.

효과적인 독서의 방법을 알려면 독서의 심리적 과정이 잘 규명되어야 한다.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없다. 자전거 타는 과정이나 축구를 하는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으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독서의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 방법을 구안하기가 쉽지 않다. 독서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이 발달하면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 독서의 방법은 책을 손에 권 후, 글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작용에만 국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 3) 방법과 기술

독서의 방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독서의 '기술'이 있다. 그런데 기술은 비교적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기술'이란 용어가 가지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손재간'이다. 독서가 고도의 정신적 작용으로 인식되는 데 비하여 손재간은 정신적 작용이 아닌 보다 낮은 차원의 재주이다. 전통적으로 문(文)을 숭상하는 전통을 가진, 그래서 기술은 낮은 차원으로 인식되는 동양 문화권에서 볼 때에 '기술'은 거부감을 갖는다. 독서를 논하는 사람들 모두가 文을 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술 즉, 손재간은 정신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단순 반복 훈련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고도의 정신적 산물이어야 할 독서는 기술이란 낱말과 어울리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방법은 기술과 어떻게 다른가? 방법이 기술과 정신적 사고의 책략까지를 포함한다면 기술은 그 방법을 실현하는 손과 발의 재주를 뜻한다. 김치 담그는 법은 만드는 과정을 포함하며 기술은 그 방법을 실천

하는 숙련된 행위이다. 방법은 기획과 실현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기술은 그것을 실천한다.

그러면, 독서의 기술은 무엇인가? 독자는 독서를 실현하는 기술자인가? 독자는 독서를 계획하는 방법가이며 동시에 독서를 실현하는 기술자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이 기술(skill)을 강조했다면 인지심리학은 책략(strategies) 혹은 방법을 강조하였다. 기술은 자신의 사고 과정 혹은 행위에 대한 반성, 목적과 가치에 대한 사고 등이 없이 맹목적으로 기술을 실천하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기술은 자칫 사고의 과정을 배제한다.

그러나 기술은 마냥 낮은 차원의 의미로만 생각될 것이 아니다. 조각가가 나무나 돌을 깎거나 다루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목공이나 석공의 단순한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기술이 바탕이 되고 있다. 고차적인 사고에서도 기초적인 사고의 기술은 필요할지 모른다. 독서의 기술에서도 기술이 단순한 기술로만 인식될 때 부정적인 것이지만 모든 기술이 부정적인 것으로 도외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변 경관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것도 핸들을 다루고 페달을 밟는 기본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조각가의 작품이나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기초적인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듯이 고차적인 사고의 독서에서도 사고의 기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쓸 내용의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조직하는 기술이 필요하듯이 글을 읽는 사고 과정에서도 기술은 필요하다. 기술과 방법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 2. 독해는 가르쳐질 수 있는가?

독해는 가르쳐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왜 이

러한 질문이 제기되는가? 만일 독해가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독서의 방법에 대하여, 글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면 뜻을 저절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글을 읽는 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위 讀書百篇義自見, 그것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한 말은 물론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나온 결론이긴 하지만, 독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공을 열심히 차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독해를 가르칠 수 있으려면 독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밝혀져야만 한다. 그러나 독해의 과정은 독자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어서 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는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을 살필 수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잘못 탈 때 그 모습을 금방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잘못을 고쳐 줄 수 있다. 즉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독서의 과정은 관찰할 수가 없으므로 글을 잘 이해 못하는 독자가 어디에서 잘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머리 속은 살필 수 없지만 그 푸는 과정이 기술될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 틀리고 맞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은 잘 설명되지 않고 그 결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독해를 가르칠 수 없는 이유가 그 과정을 알기 어려운 데에 있지만 또한 독해가 기능(skill)을 가르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독해 능력은 그 기능의 훈련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독해 능력이 있으면 그 기능의 능력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그 주제 파악 기술이 숙련되어 있느냐에 있지 않고,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제 파악의 기능이란 무엇이며 그 기능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제 파악의 기능을 가르친다면, 주제는 단락의 앞뒤, 혹은 중간, 혹은 단락 전체에 흩어져 있다. 주제를 파악하려면 핵심어를 찾고,

주제 파악의 기능이란 무엇이며 그 기능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제 파악의 기능을 가르친다면, 주제는 단락의 앞뒤, 혹은 중간, 혹은 단락 전체에 흩어져 있다. 주제를 파악하려면 핵심어를 찾고,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자.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제 파악력은 그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지적 능력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제 파악 능력은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생기는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혹은 많은 풍부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생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옛날 한 명문고의 유능한 국어 교사가 국어 시간에 들어와서는 주로 철학이나 역사 등의 이야기만 하다가 10 분여 정도의 시간만 독해 기능 교육을 하였다는 에피소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소위 요즈음 유행하는 스키마와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독해를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면 책이나 선정해 주고 하루에 몇 권씩, 언제 어떠한 태도로 읽으라는 말 이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독해 기능은 그것이 각기 분리된 개체들임에 비하여 독서 행위는 결코 개개의 기능들로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Unitary) 행위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분리된 기능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각각의 기능들이 저절로 통합된 전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쪼개진 부분(skills)의 단순한 합이 곧 전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독서 교육은 이러한 분절된 조각 기능들을 고립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된 전체로서 가르치려는 과정적 접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구성주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 구성주의는 독자를 의미 창조자(meaning-maker)로서 인식한다. 의미 창조자로서의 독자는 역동적인 학습자이며 교사는 필요한 것만을 제공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 3. 독서의 과정과 방법

독서는 일종의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한다. 독서가 문제 해결의 과정



이라면 우리는 글을 읽기 전에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해야 하며,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글을 읽은 후 찾아내야 한다. 필자는 그의 글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으며, 그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했을 때 올바른 독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이 글에서의 문제가 '올바른 전통 문화의 계승 방법은 무엇인가?'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은 후에는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독서는 또한 의미 파악의 과정이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글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며, 문장 혹은 단락의 의미가 파악된 다음에는 특별히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보통의 독서에서는 문장의 형태는 잊어버린다. 우리는 한 편의 시를 감상한 후 그 시 전체를 기억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장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독서에서는 글의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독서에서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글 속의 여러 내용들간의 의미망을 파악하는 행위이다. 글 속의 여러 내용들이 독자의 머리 속에서 일정한 논리적 관계의 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채로 내용이 뒤죽박죽이 된다면, 독자는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글 속의 여러 개념이나 내용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리하며 읽어야 한다.

독서의 과정은 일반적 사고 과정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 사고 과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물이나 사건을 보며 느끼거나 생각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우리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하며 그래야 자동차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훌륭한 해양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해양 자원의 이용 방법을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방식은 글을 읽으면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독서의

과정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다. 그러나 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글을 피상적으로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바른 독서의 방법이란 글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며 읽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그들이 치중하는 것은 피동적인 독서보다도 능동적인 사색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항상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사색하고, ……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은 책의 노예가 되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색을 위주로 하고…

— 황산덕 —

10대 시절의 독서의 요체는 쇼오가 뭘 생각하고 칸래드가 어떻게 느끼고 하는가를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찾아내는 데 있다. … 나는 내가 남의 사색에 너무 매달려 있다고 느꼈었다. 타인의 사색에 매달리는 버릇을 고칠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사색과 완전히 절연해 버리는 길뿐이라고 생각되었다.

— 크리프톤 화디만 —

독서는 또한 추론의 과정이다. 추론이란 글 속의 여러 내용들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글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찾아내는 행위이다. 글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겉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내는 것을 정교화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의 문화는 순수한 전통보다는 외래적 요소가 더 많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외래적 요소의 구체적인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추론이다. 사건이나 내용의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 또한 추론이다. 독서에서 이러한 추론의 과정은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독서는 독자와 읽고자 하는 글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독서란 글 속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독자의 머리 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긍정하기도 하지만 비판하

기도 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독서는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다. 독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읽으려고 하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독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독자는 그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올바른 독서는 결국 독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할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독서는 두 개의 요소, 즉 저자와 독자로 구성되는 행위인 것이다. 독서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수익은, 저자의 통찰력과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것만큼 독자의 통찰력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다.

— 입어당 —

그러므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능동적 사고의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독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상기시키는 능동적 사고의 독서를 위해서 독자는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해보거나 중요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학과 현실'이란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예측한 내용과 글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하면 자신이 예상한 내용과 같은 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내용도 있을 것이다. 다르면 필자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능동적 독서의 좋은 예이다.

독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독서의 목적을 의식해야 한다. 진로 선택을 위한 독서, 여가 선용을 위한 독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취미 활동을 위한 독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 시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독서 등 그 목적이 다양하다. 이러한 독서의 목적은 독자가 수동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그 목적과 필요성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책을 찾아보고 문제의 답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도 부모나 친구의 단편적인 의견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독서의 방법은 독서의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독서의 목적을 교양을 위한 독서,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독서, 여가 선용을 위한 독서로 나누고, 독서의 방법을 통독, 정독, 발췌독, 미독 등으로 나눈다면 독서의 목적에 따라 독서의 방법은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어떤 독자 특히 미숙한 독자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올바른 독서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 가령 자세히 읽어야 할 때 대충 읽는다든지, 빠르게 통독을 해도 되는데 정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독서 연구가들은 독서에서 책략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책략적인 독서를 강조한다. 책략적인 독서란 무조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읽는다는 것이다. 글을 읽을 때에도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읽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글 속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필자가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제기한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애쓰며 글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으며, 잘 모르는 것은 사전을 찾거나 누구에게가 물어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글을 읽는 것이다. 또한 글 속에서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글을 읽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경우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는 경우에 그 일을 하고 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 어떤 일을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며 그 일에 대한 흥미도 별로 없고 자발적이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하고 난 후의 결과를 크게 기대한다면 우리는 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와

흥미가 있어야 하며, 기왕 시작한 일이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그 일을 한 결과가 좋을 것이다. 독서의 경우가 또한 그렇다.

#### 4. 구성주의 원리와 학습활동

몇 가지 교수-학습 활동들은 독해 능력 발달을 가져오는 구성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독해는 독자가 그들의 지식, 경험, 가치관 등에 기초하여 텍스트를 생생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임을 전제하고 있다. 다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학습자의 독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 효과적인 활동의 몇 가지 예이다.

##### 1) 읽기 전의 준비 학습 활동

###### ① Prereading Plan(PReP) — 준비학습

읽을 글이나 책의 내용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질문을 함으로써 독자가 글을 읽는 것을 돕는다. 배경 지식을 상기시키는 것은 독자가 보다 용이하게 글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도 하지만 글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시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일 수도 있다.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히기 전에 국민학교 5, 6학년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질문은 소설을 보다 실감나게 감상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의 작용은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바탕 위에서 글을 이해하도록 한다. 피상적인 이해나 글의 내용을 이해도 못하면서 지식을 수동적으로 자신의 머리 속에 주입시키려는 태도를 방지한다. 자신의 바탕 위에서 이해되지 않은 암기된 지식, 그것은 산 지식이 아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 사전 지식을 상기시킬 수 있다. 처음의 연상(association) 단계에서는 읽을 글의 중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어구, 그림 등을 제시하고 연상되는 것을 말하게 하고 간단히 토의한다. 두 번째의 반성적 사

고(reflection)의 단계에서는 왜 그것이 연상되었는지를 설명하게 한다. 세 번째의 재구성(reformulation) 단계에서는 이 읽기 행위를 통하여 바뀐 생각이나 수정된 지식, 확장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 ② Previewing — 길잡이글

읽을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글(Preview)을 제공한다. 이 글은 읽어야 할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상기시키거나 배경 지식을 제공하며 전체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해 준다.

### ③ Anticipation Guides — 예측하기

읽을 텍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예상하는 안내문(previewing guide)을 제공한다.

## 2) 어휘 학습 활동

어휘 지식과 읽기 능력과의 상관 관계는 약 .70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읽을 글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다면 그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휘 학습을 별도로 시키는 것이 독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어휘 학습 활동에는 의미 지도 만들기, 의미 자질 분석하기 등이 있다. 읽을 글에서 중요 어휘를 가지고 의미 지도를 만들어 보게 하거나 중요 단어의 관련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게 하며, 글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 3) 텍스트 구조의 이해와 사용

훌륭한 독자는 텍스트 구조를 의식하면서 글을 읽는다. 그들은 텍스트 구조를 이용하기도 한다. 글을 읽기 전에 텍스트 구조를 의식하게 하거나 글을 읽고 난 후에 전체 내용 구조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내용 파악을 보다 분명하게 해 준다.

#### 4) 질문만들고 답하기

읽은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하게 하는 것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독자적인 정보 처리의 능력을 길러 준다. 글 내용에 대한 질문은 텍스트에 기초한 것과 독자의 지식에 기초를 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에 바탕을 둔 질문은 글을 읽고 그 답을 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독자의 지식에 바탕을 둔 질문은 텍스트를 읽어야 하지만 그 속에는 답이 없고 독자 스스로 추론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 5) 요약하기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요약하기 활동이 근래에 주목을 받고 있다. 요약하기는 읽은 글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하는 구실을 할 뿐더러 독해 능력을 길러 주기도 한다.

내용 요약은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써야 하며, 텍스트의 새로운 정보와 자신의 지식을 적절히 연결시켜야 한다.

#### 6) 노트하기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는 것은 내용 이해를 돕는다. 특히 학습에는 효과적이다.